

#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운영의 대전환

## 본문

순수한 대학연구기관인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약칭:서베이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2004년 설립된 이래로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국민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 환경 속에서 보다 정확한 ‘서베이(surveys, 통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방법론(survey methodology)’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조사방법론(서베이방법론)’에 관한 많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보건, 사회, 환경, 의료 등 분야의 대표적인 난제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베이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학문과 진리 탐구를 위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왜 이렇게 ‘조사방법론(서베이방법론)’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조사방법론’은 ‘대학에서 배우는 하나의 사회과학 교과목’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융합적인 학문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현 21세기에는 대학에서의 ‘전공’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국외 유명 대학들에 개설되어 있는 ‘서베이방법론 대학원 프로그램들(석사, 박사과정)’이나 저명 저널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프로그램들에서 서베이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방법론’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국가적/사회적/기업적 차원에서 서베이로부터 얻어지는 ‘통계(조사결과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저희 센터는 구체적인 활동과 향후 운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통계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및 조사회사들에서는 국가정책 수립과 국정운영상황 점검에 필수적

공공재인 ‘국가통계’를 생산하거나 국민들의 각종 생활 실태 조사, 여론 조사, 소비자 조사 등을 위해 수많은 서베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서베이에에서 사용되는 조사방법론, 조사예산(조사비용, 단가) 및 서베이 전문 인력은 선진 통계국들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 서베이의 민낯은 흔히 ‘통계(조사결과들)’를 담고 있는 보고서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등)은 보고서의 객관성과 과학성의 중요한 근거이지만, 보고서에는 ‘조사방법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최신 참고문헌들이 대부분 부재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 신문, 방송을 통해 흔히 공개되는 전화여론조사나 인터넷조사 결과의 거의 대부분은 비확률표본(할당표본) 또는 모집된 자원자 패널(표본)을 조사한 것이며 불과 하루 또는 며칠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조사된 것으로서 통계적인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국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가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에 서베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나 조사회사들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독립성’은 차치하고, 통계는 ‘신뢰성’과 ‘엄정성’이 기본적인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국가통계 부실,” “여론 왜곡, 편향,” “여론조사 무용지물” 등과 같은 논란에 쉽게 휩싸입니다. 이러다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의 방향 등을 결정짓는 데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산업(survey industry)이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로부터 상당수의 국가통계들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조사회사들은 취업 선호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직률 또한 높아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통계 생산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통계청과 같은 정부 기관이나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조사회사들 부터 먼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조사방법론’ 연구를 위한 조직과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조사방법론 전문연구자들(survey methodologists)’을 국내외로부터 대거 영입하거나 자체 인력 중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조사방법론’ 연구에 오랜 동안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단순

히 해외 연구 사례를 수집하고 참조하여 “따라 하기”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의 사회적/기술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국형 조사방법론(Korean survey methodology)”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앞장 서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시험의 과정 및 결과물들을 논문, 연구보고서 등으로 발표/출간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충분히 연구된 자신들의 방법론을 실제 서베이에 엄밀하게 적용하는 ‘조사연구 및 수행 체계’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정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지름길이며 ‘차별화된 명성 있는 조사기관’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미력하지만 이제 대학연구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는 2022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시설, ‘AISUM’(Archives)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첫째, 본 센터는 시설 및 서베이방법론 연구 영역을 대폭 축소합니다. 시설의 경우, ‘메인 오피스’였던 ‘동국대학교 충무로관 신관 113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메인 오피스’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관 143호’에 위치합니다. 이와 함께, 약 20년 동안 매진했던 전화조사방법론(CATI 포함) 연구나 방문조사방법론(CAPI 포함) 연구는 최근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만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더 이상 센터에서는 이들 방법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종의 ‘Virtual Lab Offices(가상 연구실)’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그리고 국외에서도 언제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의 ‘전국 규모 RDD 스마트폰 웹조사’ 연구에 집중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본 센터에서 진행한 조사방법론(서베이방법론) 연구의 주요 결과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로서, 조사예산을 절감하면서 코로나와 기후변화(기후위기)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조사방법론 연구의 결과물들을 센터 홈페이지의 ‘AISUM’ 공간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감이 크지만, 축적된 역량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방법론(서베이방법론)’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후학 양성을 위한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을 운영합니다. 이 연계전공은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산하 융합교육원에 소속됩니다.

넷째,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보건 및 사회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데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센터장 김 선 응